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6/8(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통신, 인터넷 등은 **6/7(月) 16:30부터**(기자간담회 이후)

문의: 제도혁신지원실 이종명 실장(02-6050-3491), 백지훈 과장(02-6050-3493), 김상우 연구원(02-6050-3492)

경제계 ‘국가발전의 새로운 해법 만들자’

- 국민 상대로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개시 -

- 대한상의 최태원회의 첫 프로젝트 ‘국가발전 아이디어 공모’
- ‘코로나로 바뀐 세상,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모한다
- ‘택진이 형’, ‘범수 형’, ‘한주 형’ 멘토링 예정? ... ‘국민 오디션’ 통해 선정
- 총 상금 2억 2,900만원 ... ‘A4 1장’ 응모 방식도 쉬워

OO기업의 국가발전 아이디어, OO대 교수팀의 경제성장 해법, 환경단체의 사회발전 이야기 등 ...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새로운 해법이 쏟아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민간 활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봤다”며 “경제활력 회복 방법을 몇몇 사람의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 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 진행하는 공모전이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어들이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속도와 체감은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때다’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이 모인 결과다. 이

<그림>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포스터

자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금춘수 한화 부회장, 박지원 두산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사,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17명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난달 함께 했었다.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대한민국의 미래, 내가 바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공모합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혁신·사회발전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셋발같은 아이디어엔 1억원의 상금!



6.7(월) ~ 9.24(금)

공모주제	공모일정	사상내역
① 국가적 의제 해결 프로젝트 ②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6.7 ~ 9.24 합수 10월중 10월말 ~ 11월중순 11월말	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3 입선 3
참가자격 참가단체 개인 또는 팀 (개인: 임원 포함 시임) 부 분 기업 (기업 구성원 또는 팀) 일반 (자영업자, 국민 등) 대학 (국내외 대학(원) 교수·학생)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도 및 접수 (http://nationalproject.korcham.net/)	상 상 인 원 비 고 대상 1 1억원 최우수상 3 각 3천만원 우수상 3 각 1천만원 입선 3 각 3백만원
		문의사항 운영사무국 T 02-6050-3492~6 (평일 10시 ~ 18시)

 대한상공회의소

공모전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삶의 질도 돌아갈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해묵은 과제들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 시민단체, 국민 등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켜 ‘이전과 다른’ 해법을 찾아 선진경제로 이끌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기업도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는 소통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24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의 일성이기도 하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3월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혁 서울대 교수는 “기업의 역할이 ‘단순 생산자’ 에서 자본과 노동, 아이디어와 생산을 잇는 ‘사회경제적 연결 주체’ 로 바뀌고 있다” 며 “상아가 기업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정부, 국회까지 연결과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공모전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해법을 모으기 위한 해커톤(Wir vs Virus)을 개최해 2만 8천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민간 주도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 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 공백을 메우고, ‘코로나 트라우마 진료 플랫폼’ 으로 국민 건강권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도 아이디어 공모 플랫폼(Challenge.gov)을 통해 기득권 갈등에 정체된 난제를 민간의 아이디어로 해결한 바 있다.

총 상금 2억 2,900만원... ‘A4 1장’ 응모 장벽도 낮아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시상은 일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대상에는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최우수 3명(각 3천만원), 우수상 3명(각 1천만원), 입선 3명(각 3백만원) 등 총 상금 2억 2,900만원이 주어진다.

응모 장벽도 매우 낮다. 응모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 구성원들은 A4 용지 1~2장 분량이나 영상을 통해 제안 이유, 사업 개요, 기대 효과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공모전 홈페이지(nationalproject.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 제1차 공모전의 마감기한은 9월 24일이다.

‘택진이형’, ‘범수형’, ‘한주형’ 멘토링 나올까? ... 7월 Pre-오디션 선보인다

‘대상’ 선정 절차도 눈길을 끈다. 상의 외부 자문단이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고, 기업인들이 나서 ‘2단계 CEO 멘토링’을 하게 된다. 실제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묶어 팀을 만들고, 상의 부회장들이 직접 나서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킬 예정이다. 실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상의 회장단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멘토링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3단계 오디션은 기업인 멘토링을 거친 10여개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여명의 다양한 심사위원(기업인, 교수, 컨설팅 대표, 유명 셰프, 소통 전문가 등)과 국민들이 10개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수상작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의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 ① 목적 부합성, ② 민간주도 가능성, ③ 파급성과 함께 ④ 혁신성, ⑤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고 상의측은 전했다. 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더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RE오디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전 시범경기를 가지듯이, 7월 중순까지 ‘기업’ 부문 응모작을 모아 사전(Pre) 오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 부문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대학’, ‘일반’ 부 수상 아이디어와 겨뤄 11월말 최종 대상을 가린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계가 국가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수상작 선정이 이루어지면, 올해 말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